



16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지모네헤에서 벌어진 2021~2022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7차 대회 알파인 혼성 평행대회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정해림(왼쪽)-이상호. 사진제공 | 대한스키협회

이상호 시즌 랭킹 1위로 베이징행 혼성단체전 첫 메달도...올림픽 2연속 메달 희망

대한민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간판스타 이상호(27·하이원)가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앞서 펼쳐진 월드컵 일정을 종합순위 1위로 마쳤다.

이상호는 16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지모네헤에서 열린 2021~2022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7차 대회 알파인 혼성 평행대회전에서 정해림(27·전북스키협회)과 짝을 이뤄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혼성단체전 첫 메달을 거머쥔 이상호는 올 시즌 랭킹 포인트 1위(434점)를 유지하며 올림픽 개막 이전 월드컵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날(15일) 주종목인 남자 평행대회전에선 예선을 3위(1분1초22)로 통과한 뒤 16강전에서 네빈 갈마리니(스위스)에 져 9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해림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성단체전에선 달랐다. 궤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4강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슈테판 바우마이스터-멜라니 호크라이터(독일)에 0.16초차로 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3·4위전에서 안드레이 소볼레프-폴리나 스몰렌초바(러시아)를 0.02초차로 따돌리고 메달을 따냈다. 정해림도 월드컵 첫 메달을 목에 걸며 랭킹 포인트 60점을 획득했다. 이 중목 금메달은 알렉산더 파이어르-사비네 쇼에프만(오스트리아)이 차지했다.

이상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어깨 부상으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올 시즌을 통해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알렸다. 7차례 월드컵 개인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과시했고, 혼성단체전 메달까지 수확하며 올림픽 2연속 메달 희망을 더욱 부풀렸다. 베이징 현지 코스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가 남은 관건이다.

한편 스노보드대표팀은 17일 귀국해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복권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 불법 도박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동행복권 전자복권(파워볼, 스피드키노 등)은 동행복권 공식사이트(www.dhlottery.co.kr)에서만 판매 합니다. 이 외 동행복권 재화 사칭 및 불법 전자복권 사이트 발견 시, **동행콜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080-800-0501 | http://clean.dhlottery.co.kr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998 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2년 01월 15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3	17	18	20	42	45	41
1등 총 당첨금						2,076,499,657 원
2	4	9	1	7	9	9
5	8	1	8	4		

*1등 총 당첨금은 '동행 당첨금' 중 당첨금일 기준이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공동 배분됩니다. 중 당첨금은 총 당첨금의 4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2	2,076,499,657 원
2등 5개 숫자일치	53	78,358,478 원
3등 5개 숫자일치	2,648	1,568,354 원
4등 4개 숫자일치	129,576	50,000 원
5등 3개 숫자일치	2,227,628	5,000 원

·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미·사·행
·복권은 1회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은 소액으로 안전하게 즐기세요. 동행복권센터 080-800-0501 www.dhlottery.co.kr

2년만에 열린 올스타전 ‘축제의 주연들’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①SK 김선형은 멋진 춤사위를 뽐내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②KT 신인 하윤기는 영화 캐릭터 ‘헐크’ 의상을 입고 화끈한 에어쇼로 덩크 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했다. ③선수들은 올스타전에 앞서 최근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표명일 양정고 코치를 추모하며 묵념을 했다. ④SK 최준용, ⑤KGC 변준형의 캐릭터 퍼포먼스도 눈에 띄었다.

대구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관희 3점슛왕... ‘헐크’ 하윤기 덩크왕

이관희 최고기록 19점으로 우승
셔츠 찢으며 등장한 신인 하윤기
마지막 파워덱크...최고점수 받아
역기 든 최주영 덩크 퍼포먼스상

이관희(34·창원 LG)와 하윤기(23·수원 KT)가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각각 3점슛과 덩크슛 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열리게 된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 선수들의 정확한 슈트 감각과 덩크슛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부문별 콘테스트 역시 오랜만에 팬들을 찾아왔다.

3점슛 콘테스트는 올스타전 시작에 앞서 예선을 펼쳤다. 13명의 선수가 치열한 예선을 거쳐 준결승과 결승 진출



이관희가 16일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진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 김민성 기자

자를 가렸다. 4명의 선수가 올스타전 1쿼터 종료 후 진행된 준결승에서 결승 티켓을 가렸다.

3점슛 콘테스트에서 초반 무서운 슈트 감각을 자랑한 것은 허웅(29·원주 DB)이었다. 허웅은 예선에서 17점을 넣어 1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도 똑같이 17점을 넣어 오마리 스펠맨(안양 KGC인삼공사·12점)을 가뿐히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이에 맞선 상대는 이관희였다. 예선을 14점(2위)으로 통과한 이관희는 준결승에서 12점을 기록해 최준용(서울 SK·7점)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관희와 허웅 모두 높은 슈트 정확도를 지닌 선수들이라 치열한 결승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승부는 의외로 쉽게 갈렸다. 먼저 공을 던진 허웅이 갑작스럽게 난조를 보여 12점에 그쳤다. 반면 이관희는 점차 손끝의 감각이 살아났다. 결승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 19점을 넣어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올스타전 전반전이 끝난 뒤에는 국내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의 덩크슛 콘

테스트가 열렸다. 괴물 신인 하윤기가 화끈한 덩크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영화 캐릭터 ‘헐크’로 변신한 그는 셔츠를 찢으면서 등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윤기는 원 핸드 덩크를 성공한 뒤 허훈(KT)과 최준용 등의 도움을 받아 고난도 덩크를 시도했다. 백보드 모서리를 맞히는 동료들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아 원하는 덩크슛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온 힘을 실은 파워 덩크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점슛 콘테스트 우승자 이관희는 상금 200만 원을 거머쥐었다.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 하윤기도 200만 원의 보너스를 챙겼다. 덩크슛을 하기 전 역기를 들며 등장한 최주영(대구 한국가스공사)은 ‘덩크 퍼포먼스’를 수상해 100만 원을 받았다. 외국인 선수 부문에선 스펠맨이 덩크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대구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아빠, 아니 심판!

특별 심판 변신한 ‘깡깡손님’ 허재
치열한 볼 다툼 두 아들 향해 휘슬
허훈엔 수비 파울·트래블링 선언

별들의 잔치에서도 가장 빛났다.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16일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이번 올스타전은 팬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원주 DB 허웅(29·185cm)과 수원 KT 허훈(27·180cm)의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허웅은 올스타 팬 투표에서 16만3850표를 받아 역대 올스타전 최다득표 신기록을 세웠다.

등장부터 화려했다. 허훈은 자신의 닥은꼴인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나



‘삼부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허재 전 감독(가운데)이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올스타전의 특별 심판으로 등장해 허훈(왼쪽)의 반칙을 지적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웅. 대구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무늘보로 변신했다. 장내 아나운서가 이름을 호명하자 익살스러운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해 올스타전의 출발을 알

렸다. 형인 허웅도 뒤지지 않았다. 대형 수건을 망토처럼 두른 채 춤을 추며 동생의 분장에 응수했다.

본 경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둘은 코트 위의 주인공이었다. 깡깡 손님의 방편까지 있었다. 두 형제의 아버지인 허재 전 감독(57)이 올스타전의 특별심판으로 자리했다. 허재 감독이 경기 시작점프볼을 직접 올렸고, 두 아들이 치열한 볼 다툼을 벌이며 올스타전이 시작됐다.

허재 감독은 두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휘슬을 불었다. 1쿼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허훈의 수비 파울을 지적했고, 이어 공격 시도 때는 트래블링까지 선언했다. 허재 감독은 허웅에게도 파울 한 개를 준 뒤 미련 없다는 듯 코트를 떠났다.

두 형제는 3쿼터가 끝난 뒤 각각 크루를 결성해 댄스 대결까지 펼쳤다. 올스타전을 찾은 팬들을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였다. 남다른 춤 실력을 자랑하며 3300명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구 | 정은성 기자